

문제 1

제시문 (가),(나),(다)는 모두 아름다움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하지만 세 제시문은 아름다움을 보는 관점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 제시문 (가)는 아름다움의 대상으로 매화를 제시한다. 문인 화가들은 멸칭한 매화를 일부러 틀어지고 휘어지게 만든다. 그들이 가진 아름다움의 관점으로 매화는 결국 병들어 버린다. 이는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추구하지 않고 인위적인 아름다움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반면 제시문 (나)는 아름다움의 대상으로 무량수전을 제시하며 자연과 조화되는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이는 인위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가)의 문인화가들과는 상반되는 모습이다. 자연과 조화되며 순리를 거스르지 않는 무량수전의 모습은 목조 건축 중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반면 (다)의 아름다움의 대상으로 제시된 우아함은 인위적인 아름다움의 모습이다. 르네상스 시대 궁정의 여성들에게 요구된 우아함은 "아무런 티도 안나는" 그런 우아함이었다. 그들은 우아함을 보여주기 위해 주위를 과도하게 신경쓰며 계산된 행동을 연기하지만, 그들의 모습은 제 3자에게 자연스러워야만 하는 것이다. 즉 그들에게 자연스러움은 곧 인위적임인 것이다.

인위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가)와 (다)가 유사하지만, 그 사이에도 차이점은 존재한다. (가)에 제시된 문인화가들은 자신들의 미의 기준에 대해 당당하지 못한 모습을 보인다. 그렇기에 그들은 그들 스스로 인위적인 매화를 만들지 못하고 매화 상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반면 (다)의 여인들은 우아함을 만들기 위해 스스로 노력한다. 그들에게 요구되는 우아함을 완성시키는 일이 당연하고 정당한 일이기 때문이다.

문제 2

제시문 (라)에는 두 개의 다이아몬드 그림에 제시되어 있다. 하나는 다이아몬드 원석이고, 다른 하나는 물방울 다이아몬드다. 두 그림은 모두 다이아몬드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인위적인 변형의 여부에 따라 두 그림을 보는 관점은 달라진다. 다이아몬드 원석은 인위적인 변형이 가해지지 않은 자연 그 자체이다. 자연에서 얻어진 다이아몬드 원석은 투박하지만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 원석은 무궁무진한 변형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에, 그 자체로 높이 평가될 수 있다. 반면 물방울 다이아몬드는 인위적인 변형이 가해진 다이아몬드이다. 인간이 욕심을 채우기 위해 특정한 목적을 갖춘 모양으로 변형시킨 것이다. 이는 화려하고 아름다워 장식구로서의 가치를 가진다. 그러나 그 이상의 가능성을 가지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가)를 살펴보면, 문인화가들이 인위적으로 매화에 변형을 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연 그 자체로 아름다운 매화를 인간의 욕심으로 변형시키는 행동은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문인화가들의 욕심으로 변형된 매화는 그들에게 아름다움으로서 가치가 있다. 그러나 건강한 매화를 결국 병들게 하는 그들의 행동은 매화가 가진 다양한 가능성도 함께 없애버린다. 자연 속에서 잘 자란 매화는 또 다른 매화를 피운다는 점에서 잠재성을 가진다. 이처럼 인간의 인위적인 변형이 가해지지 않은 건강한 자연은 또 다른 아름다운 자연을 만든다. 이러한 자연을 인간의 욕심으로 없애는 일은 없어야만 한다.